

애정과 안녕을 나타내는 알로하 셔츠

하와이에서는 알로하(aloha, 하와이에서 유래된 여름용 셔츠) 셔츠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빨강 꽃을 프린트한 것이라든가 시원스러운 물가를 묘사한 풍경무늬 등이다. 프린트를 한자로 나타내면 날염(捺染)이다. 날염은 후염(원단 단계에서 염색하는 것)의 일종이다. 후염에는 색사를 단일색으로 염색하는 무지염과 무늬를 만드는 날염이 있다. 프린트는 대부분의 경우, 원단을 펼친 상태로 행하는데, 옷의 형태로 만들고 나서 옷에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다. T셔츠는 후자로서 셔츠를 만들고 나서 프린트를 하는 것이 많다. 원피스라든가 셔츠 등에 사용하는 프린트 옷감의 색상무늬는 옷감의 전면에 어느 정도 반복단위의 모양(repeat)이 나타나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구도의 날염방식을 피스(piece) 날염이라고 한다. 피스구도의 색상무늬 옷감은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형입(迎入)(의복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형태의 천을 옷감으로부터 취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옷감이 버려지는 양이 적어서 비용이 적게 된다. 이에 대하여 T셔츠인 경우는 1 장의 그림이다. 이와 같은 옷의 전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한 색상무늬를 파넬구도라고 한다. 따라서 자유롭게 대담한 색상무늬를 나타내는 옷을 만들려고 할 때 파넬구도가 채용된다. 파넬구도의 것을 파넬물이라고 부르고 파넬물은 T셔츠뿐만 아니라 원피스·드레스·블라우스·스커트·에이프런 등에도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T셔츠 이외에도 가격이 높게 된다.

그것은 날염한 색상수만큼의 스크린(형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野末和志)



<그림> 파넬무늬 원피스